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계시의 시대 성경: 로마서 12장 11-18절

Tag:

-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12:11-18)

우리는 현재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면

1. 전통적 종교관에서 현대인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에(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현상), 복음전도에 대한 전통이 강력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대단히 유리하다. 사람의 영혼들은 진정한 복음을 갈망하고 있기 것이기 때문이다. (도표 참고)
2.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신학과 선교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만큼 설득력에서 우수하다. (물론 타 학문 분야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3. 현대사회의 탈 도덕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신교에서 가장 강력하

게 저항하고 있으며(대표적으로는 동성애, 테러), 현대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문제의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4. 개신교의 영성과 경건 특성은 타 종교에 비해 철저하게 생활 밀접형이다. 가정과 일터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경건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이다.(반면 카톨릭과 불교 성직자들은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헌금으로도 충분하며 또 악한 세력들로부터 받는 헌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5. 개신교 성직자가 타 종교 성직자와 비교해서 가장 강력하다. 학력이나 인원수나, 심지어 경제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가장 월등하며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그 자녀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다.

6. 개신교의 가치관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보편 논리는 비과학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영성만큼은 초과학적이다.)

7. 역사적으로 그 유비를 견줄 수 있는 시대가 없을 만큼 정보의 시대가 되었다. 이 혜택은 고스란히 기독교계에도 적용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계시의 시대가 되었다. 모든 정보가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 전파력이 LTE 급이다. 당연히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우열이 분명해졌다. 덕분에 개신교에 대한 방해공작도 치열해 졌지만,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확연하게 그 우열이 갈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더 나은 삶을 소망하라.
-더 복된 형편을 소망하라.
-더 보람있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소망하라.
-더 열심히 살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고달픔을 참아내야 한다.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기 때문이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야 한다.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힘껏 도우라는 뜻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야 한다.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라

-항상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세속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세상을 위로 끌어 올리려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함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그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승리해야 한다. 같이 싸우면 우리까지 힘이 빠지고 함께 멸망해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15절 부터는 복받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다.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정으로 전도하라. 전도하면 크게 복을 받는다.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으로 형통하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승리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으로 견고한 성을 쌓으라.

3대 종교 인구 변화 (단위:명) 자료:통계청



서울시 학력별 종교인구 (단위:%)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학교 이하	25.4	17.8	8.0
고졸 이하	25.9	13.3	9.3
대졸 이하	26.7	6.8	9.7
대학원 이상	35.8	7.8	13.4

소득별 종교인구

	개신교	불교	천주교
100만원 미만	26.1	15.2	6.1
100만~200만원 미만	24.0	16.4	10.5
200만~300만원 미만	23.8	12.0	8.8
300만~400만원 미만	27.0	9.1	8.7
400만~500만원 미만	26.8	9.2	9.7
500만원 이상	27.2	9.9	10.0

직업분류별 종교인구 (자료:서울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
관리전문직	27.9	11.1	9.1
화이트칼라	26.9	5.7	9.9
블루칼라	25.0	11.3	9.0
기타	26.9	12.7	9.5

서울시 종교별 인구 (단위:%)

(자료:서울시)



연령대별 종교 (단위:%)



혼인상태별 종교 (단위:%)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